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김규판
2. 출장기간: 2011.12.11~15일(4박 5일)
3. 출장지: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일반사업 “인도네시아와의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중심으로” 수행 상,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 참여 현황을 체크하고, 우리의 참여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 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12.11(일)	도쿄	출국	KE 2709
12(월)	경제산업성	면담	-
	외무성	"	-
13(화)	JICA	"	-
	JETRO	"	-
14(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	-
15(목)	서울	귀국	KE 2708

* 당초 출장계획상으로는 국토교통성도 면담대상이었으나, 상대방 사정으로 면담하지 못함.

III. 활동 내용

1. 경제산업성

☐ 방문일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오전 12시

☐ 면담자

- 小林彩(Kobayashi Aya, 경제산업성 아시아대양주과)

□ 면담내용

1) IEDC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역할

- CADP(아시아종합개발계획, Comprehensive Asian Development Plan)

- ERIA가 ADB, ASEAN 사무국과 함께 2009년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 완성함
- CADP는 일본정부의 '아시아소득배증계획'에 입각한 것으로서, 인프라 정비와 산업 개발을 중심으로 약 700개의 프로젝트(소요투자액: 3,900억 달러)로 구성
- 그러나, CADP는 구체적인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고는 있지 않아 마스터플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

- IEDC(인도네시아 경제회랑,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 IEDC는 CADP의 일환으로 ERIA가 수립한 것으로 CADP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정비와 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카르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IEDC의 마스터플랜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알 수 없음
- 일본정부는 IEDC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서 1)PDF(Project Development Fund) 조성, 2)전력부문, 3)2국간 Off-set Mechanism 도입(지구온난화방지 관련), 4)Smart Community 건설과 관련하여 advice를 제공함. 추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몫.

- MPA(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etropolitan Priority Area) 구상

- 경제산업성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0년 10월 MPA 개발계획에 합의하였고, 아직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JICA가 수행중임.

- MP3EI(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 Masterplan 2011-2050)

- 2011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P3EI에서도 IEDC 개발구상이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日本・インドネシア官民合同フォーラム)에서도 MP3EI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상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없었음.
- 2011년 9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MP3EI에 대한 논의는 있었음.

2. 외무성

☐ 방문일시

- 2011년 12월 11일(월) 오후 2시~4시

☐ 면담자

- 若林孝廣(Wakabayashi Takahiro, 외무성 남부아시아부 남동아시아 제2과, 외무사무관)
- 角田勝徳(Tsunoda Katsunori, 외무성 국제협력국 국별개발협력 제1과, 외무사무관)
- 大西知恵(Ohnishi Chi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일한경제실, 외무사무관)

☐ 면담내용

1)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경제협력 관계

- 일본의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1998년 아시아통화위기를 계기로 기조가 바뀜
- 과거에는 일본이 ODA 공여를 통해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주도하였으나, 아시아통화위기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ODA 수여를 꺼려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영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도 Win-Win 관계로

전환

- 일본은 2004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력의 20%, 수도권 도로의 20% 정도를 ODA를 통해 정비할 정도로 ODA 전략에 집중해 왔음.
- 최근에는 2011년 6월 이토추상사와 J-Power가 인도네시아 중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LNG, 석탄, 팜오일과 같은 천연자원을 대량 수입하는 대신, 철강이나 자동차부품, 가스터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일본이 무역적자.
-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는 누적기준으로는 일본이 1위이나, 최근 연간 기준으로는 3~4위에 그치고 있음.
-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간 공식적 협력 채널은 1)외무장관 간 strategic dialogue(2011년 2월 처음 개최), 2)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2010년 1월 처음 개최), 3)국방분야의 defense dialogue(2011년 1월 처음 개최)가 전부임.

2)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EPA 체결 효과

-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EPA는 2008년 발효되었고, 최근 일본 기업의 EPA 활용도도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증가한다든지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 간호사를 매년 150~200명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본 자격증 시험의 합격자 비율은 5%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임.

3. JICA

☐ 방문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12시

□ 면담자

- 柿岡直木(Kakioka Naoki, 동남아시아·대양주부 동남아시아제1과(인도네시아))

□ 면담내용

1) IEDC 추진에서 JICA의 역할

- JICA는 2011년 5월부터 MPA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시행중에 있고, 내년 4월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상기 조사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MPA 인프라 정비 계획과, 201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7건의 MPA 조기사업(fast-track project)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사는 일본 단독으로 진행 중이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MPA 조기사업

- JICA가 현재 조사 중인 MPA 조기사업은 2011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이미 일본정부의 엔차관(Yen-loan) 지원하에서 추진중인 것도 있고, 아직 사업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음.
- 자바 서부 지역 폐기물 처리(Solid Waste Treatment and Final Disposal) 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자바-수마트라 송전망(Interconnection Transmission Line)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정부의 엔차관 공여하에 이미 추진중임.
- 일본 정부나 기업의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는 기존 탄중프리오크(Tanjung Priok)항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국제항만을 건설하는 것과, Soekarno-Hatta 국제공항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를 부설하는 것, 그리고 자카르타 고속전철(Jakarta Mass Rapid Transit: MRT: S-NI, S-NII, E-W) 부설 및 도로 네크워 정비라 할 수 있음.

3) 일본기업의 MPA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 2011년 10월 태국 홍수를 계기로 일본기업의 MP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전력회사(IPP)와 건설회사, 종합상사의 관심이 높은 편이고, SPV 형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JICA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에 기술협력을 제공 중
- 기술협력은 주로 PPP 관련 법률 정비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risk-sharing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IEDC 프로젝트의 과제

- 인프라개발 과정에서 현지 토지를 원활하게 수용하는 것도 큰 과제 중의 하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대국 정부가 어떻게 commitment할 것인가가 더 중요
- IEDC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므로, JICA로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4. JETRO

☐ 방문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3시~5시

☐ 면담자

-北見創(Kitami So, 해외조사부 아시아·대양주과)

☐ 면담내용

1) IEDC 추진에서 JETRO의 역할

- JETRO는 현재 IEDC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나 일본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국내에서 세미나 개최와 같은 방법으로 IEDC를 적극 홍보할 예정
- 최근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 관심이 높아, JETRO에 신설된 인프라플랜트비즈니스과가 전적으로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및 인식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000개 정도이고, 지역적으로는 자카르타(358개)와 West Java(415개)에 80% 정도가 집중
- 특히 마루베니상사나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 등이 주축이 되어 부설한 자카르타 동부지역의 MM2100, 카라완공업단지, GIIP공업단지는 2,3년전부터 본격 가동하였으며, 일본기업의 전형적인 해외공업단지라 할 수 있음.
- 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동기는 태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경우가 많음.
- 한국기업들도 일본 공업단지 주변과 Jawa Beka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개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 할 수 있음.
- JETRO가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영업이익이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80%를 상회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시장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는 별도로, 인도네시

아 정부의 불투명한 법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진출 일본 기업은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종업원의 임금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경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특히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법인세 징세관련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자카르타 소재의 JJC(Japan Jakarta Club: 일본기업모임)는 매년 위와 같은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있음.

5. 아시아경제연구소(IDE)

☐ 방문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3시~5시

☐ 면담자

- 佐藤百合(Sato Yuri, 지역연구센터 차장 겸 인도네시아 경제담당 연구자)

☐ 면담내용

1)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계획 책정에서 ERIA의 역할

- ERIA는 어디까지나 다자간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 수립에 관여함
 - ERIA는 베트남의 ASEAN Connectivity Master Plan 수립에도 관여하였고, IEDC와 관련해서는 2009년 아시아중합개발계획(CADP; GSM 포함)을 수립하여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보고하기도 함.

2)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계획 책정에서 일본 정부의 역할

- ERIA가 다자간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의 관점에서 IEDC 수립에 관여하였다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日本・インドネシア官民合同フォーラム)이라는 양자간협력(Bilateral Cooperation) 기구를 통해 IEDC 수립에 관여함.
-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은 2001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당시는 조세, 관세, 노동, 인프라(전력), 투자 및 중소기업 정책 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환경개선 노력에 주력함.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 외에도, JJC(Japan Jakarta Club: 일본기업모임)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단, 일본의 관민합동경제포럼은 한국의 경제포럼과 달리, 상설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매년 수시로 포럼을 개최하는 데 그침. Counter partner는 인도네시아 경제담당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 Hatta Rajasa)임.
- 일본·인도네시아 관민합동경제포럼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IEDC 개발계획은 ERIA가 책정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3) MP3EI와 IEDC간 관계

- IEDC는 ERIA가 책정하였고, 2011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MP3EI(Masterplan 2011-2050)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MP3EI상의 IEDC는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책임을 갖고 추진함.
- 일본정부가 ERIA나 관민합동경제포럼을 통해 IEDC에 관여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적 공헌’에 지나지 않음. 실행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몫.

4)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나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 일본은 현재 IEDC의 일환으로서 MPA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자카르타와 동부 부카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hard + soft) 개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반면, 한국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인도네시아 경협사업은 일본정부의 사업규모와 거의 같은 2조 엔 규모이지만, 인프라가 아닌 제조업 중심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제조업진출 지역도 자카르타와 동부 부카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마트라섬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POSCO와 신일본제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기업보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한국기업의 선택이 더 탁월한 것 같음.
- 이상-